

조사보고서

2020-1

2020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 분석결과

2019. 12

1. 조사의 개요

1. 조사목적

- 여수지역 제조업체의 경기전망을 조사·분석하여 기업의 경영계획 및 정부의 경기 대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는데 있음.

2. 조사대상 기간, 조사기간, 조사방법

- 2019년 4/4분기(10, 11, 12월) : 실적기간
- 2020년 1/4분기(1, 2, 3월) : 전망기간
- 조사기간 : 2019. 12. 4. ~ 2019. 12. 18. (휴일제외 10일)
- 조사방법 : 설문지 조사

3. 조사대상

- 여수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상시 종업원 15인 이상의 제조업체 187개사
- 응답개수 : 68개 (설문지 회수율 : 36.4%)

4. 조사내용

- 전반적인 체감경기(경기실적 및 전망)
- 경기 변화에 따른 기업 부담과 대책 상황 등

5. 집계·분석

- 회수된 조사표를 각 항목별로 집계·처리

6. 기업경기 실사지수(BSI)의 작성방법

- 전반적인 경기조사 및 항목별 평가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기간의 실적과 예측을 각각 전 분기 및 전년 동기와 대비하여 호전(상승, 증가), 악화(하락, 감소)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 하였음.

즉, 기업 경기 실사지수(BSI)는 다음 산식에 의해서 작성하였음.

$$\text{기업경기실사지수(BSI)} = \frac{\text{증가(+)}\text{표시업체 수} - \text{감소(-)}\text{표시업체 수}}{\text{총 유효 응답 업체 수}} \times 100 + 100$$

※ BSI = Business Survey Index (0 ≤ BSI ≤ 200)

- 따라서 BSI의 기준치는 100이며, 100을 초과할 때는 호전(상승, 증가)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하락, 감소)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 100 미만일 때는 그 반대를 나타냄.

II. 2020년 1/4분기 기업경기 전망

1. 종합전망

가. 개황

- 여수지역에 소재한 187개 제조업체를 대상(설문지 회수 : 68개, 회수율 : 36.4%)으로 2020년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경기 전망지수(BSI)는 '94.1'으로 조사되었다.
- 석유화학 연관업종(39개)만을 대상으로 한 경기전망지수(BSI)는 82.1이다.

나. 항목별 경기전망 지수

【종합 (N = 68)】

구 분	항 목	전체	
		2019년 3/4분기 실적 (전 분기 대비)	2019년 4/4분기 전망 (전 분기 대비)
	체감 경기	82.4	94.1
	매출액	91.2	92.6
	영업이익	83.8	91.2
	설비투자	102.9	97.1
	자금조달여건	94.1	91.2

【석유화학 연관업종(N=39)】

구 분	항 목	전체	
		2019년 3/4분기 실적 (전 분기 대비)	2019년 4/4분기 전망 (전 분기 대비)
	체감 경기	74.4	82.1
	매출액	74.4	76.9
	영업이익	71.8	76.9
	설비투자	94.9	87.2
	자금조달여건	89.7	84.6

【일반기업(N=29)】

구 분	항 목	전체	
		2019년 3/4분기 실적 (전 분기 대비)	2019년 4/4분기 전망 (전 분기 대비)
	체감 경기	93.1	110.3
	매출액	113.8	113.8
	영업이익	100	110.3
	설비투자	113.8	110.3
	자금조달여건	100	100

2. 설문 결과 분석

- ◆ 2020년 1/4분기의 여수지역 경기전망지수(BSI)는 ‘94.1’로 조사되었다.
응답 개수 : 68개 (설문지 회수율 : 36.4%)
- ◆ 이는 기업경기 체감지수 기준 값(前분기 대비 다음분기의 기업경기 체감이 동일함을 의미하는 기준 값)인 100보다는 작은 값으로 “부정적”인 결과다.
- ◆ 반면, 석유화학 연관업종(39개)만을 대상으로 한 경기전망지수는 82.1이다.
- ◆ 최근 석유화학 연관업종의 경기전망 추이를 살펴보면, 100.0(2019년 2/4분기) ⇨ 82.9(2019년 3/4분기) ⇨ 71.8 (2019년 4/4분기) ⇨ 82.1(2020년 1/4분기)이다.
- ◆ 다시 말해서, 올해 2/4분기를 기점으로 경기전망지수의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고려했을 때, 이번에 조사된 경기전망지수(82.1)는 경기가 반등하여 다소 호전될 것 이라는 기대심리가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수치로 해석된다.
- ◆ 석유화학업종의 영업 이익률 하락, 10년 만에 최저가격에 형성된 에틸렌 가격, 미·중 간 무역 분쟁 등의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기하락에 대한 방어심리와 연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의 영향으로 “보합 유지” 전망과 여전한 실적 악화로 향후 가동률 감소, 제품 가격 하락, 수주물량 미비 등을 이유로 경기하락을 예측하는 “부정적” 응답이 나뉘어 지난 분기보다 다소 상승한 전망지수가 조사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 반면 일반 업종을 포함한 2020년도 1/4분기 종합 경기전망지수는 석유화학 연관업종의 체감지수인 82.1보다 높은 94.1으로 조사되었다. 연초의 수산물 주문량 및 일반 제품의 소비 증가, 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른 매출 신장 기대 등의 기대심리가 석유화학연관업종 보다 높게 전망치가 나오는데 주요 원인이었다.
- ◆ “2020년 경제 흐름은 2019년에 비해 어떠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올해와 비슷(55.9%)” > “악화(30.9%)” > “호전(10.3%)” > 매우 악화(2.9%)로 조사되었는데, 대체로 올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 ◆ “2020년 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내리스크는 무엇입니까?”라는 질

문에 “내수침체 장기화(39.3%)” > “최저임금, 주52시간 등 고용환경 변화 (36.4%)” > “총선 등 정치이슈(10.3%)” > “투자심리 위축(8.4%)” > “신산업,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규제(3.7%)” 순으로, 내수침체와 고용환경 변화가 가장 큰 대내리스크로 지목됐다.

- ◆ “2020년 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리스크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환율, 금리 변동성 심화(35.4%)” > “美·中무역분쟁 등 보호 무역주의 (27.3%)” > “수출규제, 지소미아 등 한일 갈등(16.2%)” > “中경제 성장세 둔화 (14.1%)” 순이었다.
- ◆ 내년도 사업계획 방향은 보수적(76.5%), 공격적(23.5%)이었으며, 보수적이라고 답한 경우 그 이유로는 “불확실성 증대로 소극적 경영(63.6%)” > “원자재 값 변동성 확대(18.2%)” > “국내시장 포화로 투자처 부재(10.9%)” > “서비스, 신산업 등 신규투자 기회 봉쇄(5.5%)” 순이었다.
- ◆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신규채용 인원 계획은?”의 질문에 “2019년과 비슷하다(66.2%)” > “2019년보다 늘릴 것(19.1%)” > “2019년보다 줄일 것 (14.7%)” 순으로 조사되었다.
- ◆ “정부의 남은 임기동안 역점을 뒤편할 경제정책은 무엇입니까?” 이라는 질문에 “고용노동정책 탄력 적용(59.7%)” > “과격적 규제 개혁(23.4%)” > “수출·투자 모멘텀 회복(15.6%)” > 벤처창업 활성화, 스케일업(1.3%) 순이었다.